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i>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i>			
보도 일시	2022. 7. 18.(월) 조간 2022. 7. 17.(일) 11:00	배포 일시	2022. 7. 15.(금) 오후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330)
		담당자	사무관 황지원 (044-200-5342)

2030 부산세계박람회 특사단 태평양도서국 면담 성료

- SK, 삼성, 동원, 대한상의 해외 네트워크 총동원 교섭
- 올 하반기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 유치활동 지속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태평양도서국포럼*이 열리는 피지 수바를 방문해 7월 10일(일)부터 7월 13일(수)까지 나홀간 사모아, 투발루, 피지, 나우루,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바누아투, 키리바시, 통가, 팔라우 등 10개국 최고위급 인사를 차례로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 Pacific Islands Forum : 태평양 지역의 정부 수반 회의로 매년 역내 경제발전 등 협력 논의

해수부·외교부·부산시·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SK·삼성·동원산업·대한상의 대표로 구성된 특사단은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권을 가진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홍보와 유치활동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조승환 특사는 같은 기간 태평양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피지를 방문한 모니카 메디나(Monica Medina) 미국 국무부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와도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어업, 청색경제 (Blue Economy) 등 양국간 해양 수산 협력 의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 특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차관보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한편, 권용우 외교부 BIE* 협력대사도 테부아이 우아이(Tebuui Uaai) 주피지 키리바시 대사와 별도 유선 면담을 갖고,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 Burea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 국제박람회기구

상당수 태평양도서국이 기후변화 대응, 청색경제 등 부산 박람회가 내건 주제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및 우리 기업들과의 수산·에너지·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큰 관심과 공감을 표하였고, 이 중 일부 국가는 부산에 대한 공식 지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사단은 7일간의 피지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7월 16일(토) 귀국하며,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한-태평양도서국 외교 장관회의 등 다양한 고위급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태평양도서국의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차원에서 대한상공 회의소 주도로 민간 기업 사절단이 11월 피지를 재차 방문하여 협력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이와 함께, 조승환 장관은 피지 방문 기간 중 수바항 시찰, 한국인 선원 묘지 참배, 피지 재외동포간담회를 통해 주피지 한인 대표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조승환 특사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태평양도서국이 요청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이번 피지 방문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330)
		담당자	사무관	황지원 (044-200-5342)
담당부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유치총괄팀	책임자	팀 장	송선용 (02-2036-9850)
		담당자	사무관	장상우 (02-2036-9851)
담당부서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단	책임자	과 장	박근록 (051-888-6440)
		담당자	사무관	황현기 (051-888-6523)

참고 1 관련 사진



사모아 총리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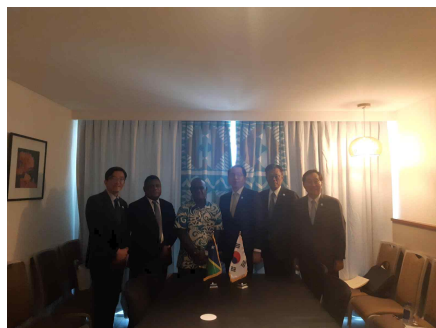
투발루 외교장관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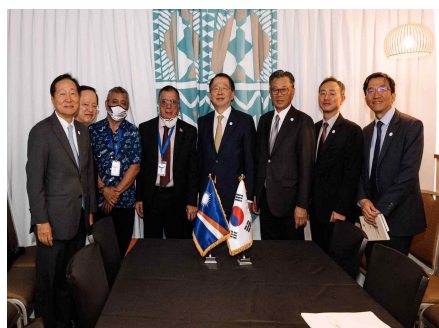
피지 총리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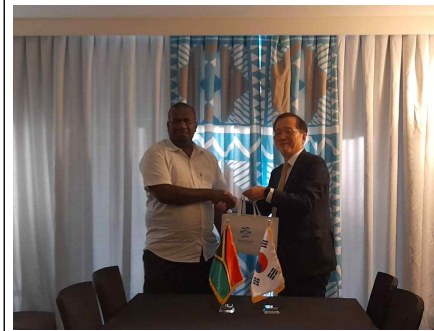
나우루 대통령 특사 면담
(좌측부터 수산부 장관, 대통령 특사)



솔로몬제도 외교장관 면담



마셜제도 상업·천자원장관 면담



바누아투 외교장관 면담



통가 총리 면담



통가 총리 면담(단체사진)



팔라우 대통령 면담



미국 국무부 차관보 면담



교민간담회

□ **세계박람회**는 인류가 이룩한 업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자리에서 비교·전시하고, 해결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문화올림픽**

* 1851년 런던에서 증기기관차가 등장한 최초 박람회 개최, 이후 전화기(1876, 필라델피아), 전구·축음기(1878, 파리), 자동차(1885, 앤트워프), TV(1939, 뉴욕) 등 수많은 박람회 개최

○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박람회는 **등록박람회(Registered Expo)**와 **인정박람회(Recognized Expo)**로 구분

*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세계박람회를 주관하는 정부간 국제기구(회원국 170개국)

☞ 한국은 2번의 인정박람회(대전 '93, 여수 '12) 유치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부산) 공식선언 ('21.6 유치신청서 제출)

□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및 개최 의의

◆ **개최기간/장소** : 2030. 5. 1 ~ 10. 31(6개월) /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 (344만㎡)

* 북항은 세계박람회 개최 후 북항재개발사업에 따라 국제해양복합도시로 개발예정

◆ **주 제** :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 **부 제** : 자연과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인류를 위한 기술(Technology for Humanity), 돌봄과 나눔의 장(Platform for Caring and Sharing)

◆ **개최비용/국비(잠정)** : 약 4.9조원/약 1.2조원

◆ **개최효과(잠정)** :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창출 50만명

○ **유치성공시 세계 12번째**(아시아에서는 4번째) **등록 엑스포 개최 국가**

* 벨기에, 프랑스, 미국, 아이티, 캐나다, 일본, 스페인, 독일, 중국, 이탈리아, UAE

○ **3대 행사**(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

*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